

# 3000년 역사 속에서 찾아낸 삶의 지혜들



**원더박스**  
로렌 크루츠나릭 지음  
강혜정 옮김  
원더박스 펌  
2만원



1880년경 봉 마르세백화점 중앙감판. 백화점은 오페라 공연장이자 극장이고, 미술관이기도 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랜 세월 인류가 던져온 질문이다. 책은 인류가 오랜 세월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다. 그 고찰의 영역은 우리 인류의 ‘역사’다. 작가 알렉스 보통과 함께 ‘인생학교’에서 강의한 로렌 크루츠나릭의 ‘한 권으로 읽는 인생학교’ (원더박스)다. ‘원더박스’라는 제목은 르네상스 시대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분더캄머(Wunderkammer)’에서 유래한 것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진귀하고 매혹적인 수집품들로 채운 장식장이나 전시실을 말한다. 책은 가사노동에 적극 참여했던 남편의 역사나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시계 발명이 낳은 부작용 등 다양한 이야기와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20세기는 소비와 물질의 시대였다. 사람들은 소비의 쾌락과 물질적인 부에 집착해왔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깊이와 의미가 있는 삶, 성취감을 주는 삶을 갈망하고 있다. 이처럼 달라진 세상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고 추구할 것인가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류의 과제가 되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과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 영역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영감의 원천임에도 사람들이 좀처럼 활용하지 않는 영역이 하나 있다. 바로 ‘역사’다.”고 말한다.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살아 온

방식을 탐구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난관과 기회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교훈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역사’를 르네상스 시대의 ‘원더박스’와 같은 것으로 인식했다. 수집가들이 여기저기서 모은 매혹적이고 진기한 물건들을 전시하거나 모아 두는 원더박스처럼 역사도 마찬가지로 각종 문화의 보고라고 말한다. 역사를 통해 흥미로운 이야기와 다양한 사상이 전해져 왔다. 말하자면 역사는 누구나의 지만 있으면 역사를 통해 전해져온 흥미로운 이야기와 사상들을 통해 교훈을 뽑아 낼 수 있는 인류의 유산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역사는 원더박스를 열고 들여다보았을 때 삶에 대해 배울 것은 무궁

의 백화점 봉 마르세가 바뀌는 ‘좋은 삶’ / 시각이 감각의 왕좌를 차지하게 된 네 단계 등 그동안 인류가 간과했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발굴해 낸다.

모든 역사는 작가 혹은 역사가의 시선을 거친 산물이며, 그들은 선택과 생략과 해석 등을 통해 나름의 방식으로 과거를 걸러낸다. 이 책도 예외는 아니다. 사랑, 돈 등 열두 가지 주제를 다루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그것의 역사 전부를 다루지는 않는다. 현재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삶의 문제와 난관을 조망하기에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가족을 다루는 2장에는 집안일을 맡은 남편, 즉 주부(主夫, househusband)의 역사와 가족 간 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이런 선택을 한 데는 저자가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구하고 광범위한 역사에서 하필이면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결정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곤혹스러워 하는 사람들, 혹은 세상살이 방식에 순수한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삶을 변화시킬 여력과 기회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유용한지를 두루 판단하여 선별했다.

저자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점을 찾아내어 인간관계에 깊이를 더하고, 먹고사는 방식을 재고하고, 세상과 자아를 탐구하는 새로운 방식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해줄 상상의 다리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이 책의 취지라고 말한다. ‘원더박스’의 뚜껑을 열고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다.

박재원 기자 wanhillo@hyunbul.com

## ‘삶’에 대한 대답 ‘역사’에서 모색 인류의 역사는 ‘원더박스’

무진한 것이다.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선조들의 살아온 방식 중에 가장 바람직하고 실험력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실천함을 의미한다.

책은 사랑, 가족, 공감, 일, 시간, 돈, 감각 여행, 자연, 신념, 창조성, 죽음 방식 12가지 주제를 설정하고 오래된 인류의 질문의 답을 찾아 나간다.

다이어몬드는 어떻게 결혼식 예물계의 절대 강자가 되었나? / 숨 막히는 사랑을 형성한 한 조각 ‘키스’ / (아빠 어디가?)의 아빠들에게 선배들이 있었다. / 공감 능력 계발을 위한 감각 체험을 시도한 조지 오웰 /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보면 역사가 새롭게 보인다. / 제네럴 리스트가 되는 세 가지 방법 /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시계 발명의 부작용 / 최

류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처럼 제시되고 옹호되는 역사적 사실 등 개발의 이론과 실체가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소개함으로써 개발을 통시적인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짧은 안목을 제공한다.

책은 근대적 발전의 표준 국가가 된 미국, 전후 ‘개발 프로젝트’의 총아로 부상한 한국, ‘양말 도시’와 ‘넥타이 도시’를 거느린 ‘세계의 공장’ 중국, 라틴아메리카의 자원 민족주의를 선도하는 베네수엘라까지 ‘개발’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역사적으로 ‘개발’이 “통치를 위한 정치적 기획”으로 동원되었다는 데 주목하면서 오랜 세월 인류가 따라야 하는 ‘보편적 발전’의 길로 여겼던 개발의 실상을 파헤친다.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변화’를 이루자는 것인데, 세상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개발 분야 역시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진단이 모두 다르다. 사회학자의 냉철한 눈과 운동가의 뜨거운 가슴을 지닌 저자는 어려운 학술 용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와 흥미진진한 사례 연구를 통해 지난 200년 간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발의 역사와 주요 이론, 논쟁의 흐름을 책을 통해 명쾌하게 정리해 준다.

박재원 기자

## ‘개발’...왜,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거대한 역설

필립 맥마이클 지음 | 조호제 옮김 | 교양인 펌 | 2만3천원



〈거대한 역설〉은 국제 개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필립 맥마이클의 저서로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관심사를 가운데 가장 포괄적 주제인 ‘개발’(development)을 정리하고, ‘개발’로 인한 부작용들을 파헤친 역사서이자 문명 비판서다. 책은 개발을 경제 발전의 관점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핵심 동인으로 보는 주류적 견해에 맞서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이해할 수 있는 해안을 제시한다.

우선 인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개발의 의미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개발의 기원을 파헤치면서 개발이 자본주의, 산업혁명, 서구의 비서구권 지배와 얼마나 긴밀하게 얽힌 채 시작되었는지를 상기시켜준다. 애초 개발이 어떤 목적으로 또 어

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개발의 태생적 한계와 그 갈등적 성격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류는 개발을 모두를 위한 경제 성장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추구해 왔다. 왜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개발의 사다리’에 위태롭게 올라서서 위를 쳐다보게 되었는지, 어떻게 개발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국가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는지, 책은 식민화와 산업화 시대부터 시작해 ‘개발’의 역사를 추적하고 그 근원적 특성을 드러냄으로써 이러한 의문의 답을 찾는다.

다음으로, 서구의 식민 지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개발의 문제적 기원과 식민 시대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신생 독립국들이 탄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개발의 시대, 이른바 ‘개발 프로젝트’의 시대, 이 나라들이 새로운 국가 건설의 정당성을 시민권적 사회 계약에서 찾으면서 국가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기 위해 개발을 이용한 점, 구식 민 지배 세력이 냉전 체제에서 전략적 우위를 지키고 과거 식민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 담론을 활용한 것, 이런 와중에 개발은 인

## 당신의 두 손에 우주의 생명력이...

### 레이키의 비밀

앤 칼리쉬, 안젤라 로버트슨 지음 | 김병채, 김설이 옮김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펌 | 1만3천원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의 ‘지혜로 가는 길’ 시리즈 제21권 (레이키의 비밀)은 손으로 하는 힐링 요법을 소개한다.

레이키는 손을 이용한 힐링 요법으로 우주의 생명력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우주의 생명력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당겨 이것이 자신의 손을 통해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신체 여러 부위에 차례로 손을 가져가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면 그 에너지를 받은 사람의 신체 주변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회복되는 것이다.

레이키 힐링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우주의 생명력의 개념은 수천 년 동안 많은 문명을 통해 인식되어 왔으며, 태극권이나 요가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훈련법뿐만 아니라 침술이나 지압과 같은 여러 가지 현대적 치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 생명력이 기(氣)로 알려졌으며, 힌두교에서는 프라나(Pрана),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카(Ka)로 알려졌다. 레이키의 신념 및 수행은 19세기 일본을 시작으로 하와이, 캘리포니아를 거쳐 서구 세계로 퍼져 나갔다. 레이키는 말 자체는 ‘우주’를 뜻하는 일본어 레이(靈)와 생명력을 뜻하는 ‘키(氣)’가 합쳐진 것이다.

레이키 교습은 일반적으로 세 개의 주요 단계로 나뉘어, 꾸준한 속도로 에너지에 접근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3단계는 때로 두 단계로 다시 나뉘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3단계와 4단계로 설명한다.

책은 ‘레이키의 힐링 정신’, ‘힐링 받기’, ‘레이키를 배우는 방법’, ‘힐링 하기’, ‘보상 받기’, ‘레이키의 향상’, ‘용어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레이키를 배우는 방법’과 ‘힐링 받기’에서 레이키의 핵심인 손동작과 교육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레이키의 효과는 극적으로 등장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항상 즉각적이거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지지자들이 모든 사람, 모든 산물의 일부인 것처럼 믿고 있는 우주생명 에너지에 접근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레이키 힐링은 자신의 삶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레이키 힐링을 할 수 있다.

레이키는 손으로 하는 힐링의 한 형태지만 점술 요법이나 침술, 운동 요법, 풀프시 마사지(근육을 깊숙이 마사지하는 물리 요법), 마사지, 지압, 반사요법과 같은 요법에서처럼 신체에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른 요법처럼 부상이나 통증이 발생할 위험이 없다. 또한 레이키는 종교가 아니므로 다른 신념을 지닌 사람들도 수행할 수 있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3 ~ 4/9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민덕,민현	현자문화사
2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생앤파크스
5	지혜로운 삶(우학스님 신심명 강설)	우학	좋은인연
6	뉘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중	웅화
7	그대 보지 못했는개서님 콘스님 회고록	서암	정도출판
8	행복 119	성담	셀프캠퍼서치
9	절대 혼자 살지 마라(스님의 쓴 소리)	혜철	마진타
10	니까야 강독	각목,대림	초기불전연구원

※불서출판 운우사 제공

**www.unjusa.com**  
운우사 (02)3672-7181

## 불자들 간의 선물도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다.

불자 모두 선물은『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 불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Concise Buddhism Dictionary

선물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승화된다.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특징

-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단어 4,950여 개 항목을 엄선했다.
-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명확·풍부하다.
-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고급 사전 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로 가볍다.
-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한 단어만 찾아도 관련된 지식이 쏟아진다. 부처님 생애는 물론, 인도·중국·한국·티베트·일본불교의 역사와 초기·원시·부파·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의 교리와 역사·사상·철학·문화가 다 서술되어 있다. 특히 반야,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대승불교, 선사상, 무아, 열반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되어 있다.

김승동 편자(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17×178mm / 고급 사전 용지 사용 / 1,216쪽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특수 제본 / 값 38,000원

구입 문의  
**민주사**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빌리는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법보시 주문받습니다.